



아시아 최강, 로봇수술센터 글로벌 NO.1향해 정진, 또 정진!

전립선암, 대장/직장암, 갑상선암 등 세계수준 우뚝



세계적인 수준의 다양한 암 로봇수술로 아시아 최강을 넘어 글로벌 No.1을 넘보는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올해 1월 고난도 로봇수술 850례 달성을 비롯해, 7월에는 개소 5주년을 맞아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을 바라보고있다. 2007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최신 수술로봇 다빈치-S 시스템을 도입하며 로봇수술의 국내 도입 선봉에 섰던 로봇수술센터는 단기간에 로봇수술을 전립선, 대장직장, 갑상선, 위, 부인질환 등 다양한 임상분야에 적용하며 독보적인 수술 테크닉으로 국내외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뇨기과 천준교수, 대장항문외과 김선한 교수 등 고대 안암병원의 세계적인 명의들이 펼치는 로봇을 이용한 의술은 여타 의료기관을 비롯해 해외 학회에서까지 수술시연, 증례발표 등을 위해 초청이 줄을 이었다. 두 의료진은 모 방송국에 암 로봇수술 명의로 선정되며 의학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작년에는 개소 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다른 로봇수술센터보다 월등히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 병원과 의료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 부작용 최소화하며 암조직 완벽제거

로봇수술은 정교함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수술에 비해 10배 이상 확대한 3차원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주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수술시 상처가 작아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전립선암에 사용하던 로봇수술을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대장/직장암을 비롯해 갑상선암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고 있다. 규모는 대형병원의 로봇수술센터에 비해 작긴 하지만 의료진의 술기와 역량으로만 따지면 세계 어느 의료기관과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한국 의사들이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찾아 다녔지만 이제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진의 강력한 맨파워가 강점. 무혈수술로 세계 정평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의료진의 강력한 맨파워다. 전립선, 방광암 등 비뇨기암은 무혈수술로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비뇨기과 천준, 강석호, 고영희 교수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로봇수술학회와 공동으로 수술 및 학술컨퍼런스를 4대륙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이 분야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천준 교수는 최근 세계 최고의 로봇비뇨기수술 교과서 집필에 동참하며 그 술기를 전세계에 전수하고 있다. 또한, 김선한 교수는 싱가포르 의대에 초빙교수로 임용된 것을 비롯해 美 메이요와 클리블랜드클리닉을 비롯한 국제 학회 등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자신의 술기를 원격 생중계로 전수하기도 했다. 또한 김선한 교수의 로봇 직장암 수술법이 매뉴얼로 제작되어 전 세계 의료진에게 배포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세계적인 로봇수술법 개발의 메카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

대장직장암의 김진교수, 위암의 박성수 교수, 갑상선암의 정광운 교수(이비인후과)와 김훈엽 교수(유방내분비외과) 그리고 김 탁 교수(산부인과), 강석호 교수(비뇨기과), 백승국 교수(이비인후과), 송재운 교수(산부인과)도 새로운 로봇수술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로봇수술센터 전문간호사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수술간호업무 능력과 로봇의료기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등 세계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화발전기금기부

11.10.07	김철민	₩ 5,000,000	10.07.14	김영환	₩ 10,000,000
11.09.30	김관임	₩ 6,000,000	11.12.08	김태준(39회 동기회)	₩ 10,000,000
11.10.19	허기웅, 송태순	₩ 10,000,000	11.12.08	김재선(학부모)	₩ 10,000,000
11.10.10	이명주	₩ 2,400,000	11.12.21	이광철	₩ 10,000,000
11.12.01	한정훈	₩ 10,000,000	11.12.22	의과대학 20회 동기회	₩ 67,000,000
11.11.29	곽철영	₩ 1,000,000	12.01.25	김해준	₩ 9,000,000
11.09.01	맥스바이오텍	₩ 10,200,000	12.01.03	김연희	₩ 12,000,000
11.09.27	박기현	₩ 5,000,000	12.02.08	김재홍, 최경희	₩ 7,500,000
11.10.04	기능성다당연구소	₩ 9,000,000	12.02.24	정규병	₩ 20,000,000

* 기간 : 2011년 10월 07일~2012년 02월 24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1면에 이어]

아시아 첫 로봇수술 3D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작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의 양성에 특히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0년 아시아 첫 로봇수술 3D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작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센터 내에 시뮬레이션 장비를 직접 도입해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3세대형 로봇수술 교육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외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이 가능한 로봇수술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국내 로봇수술 의학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원과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센터발전 견인


그동안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이처럼 세계적인 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김린 의무부총장, 박승하 병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김린 의무부총장은 로봇수술센터 개소 당시 고대 안암병원장으로 로봇수술의 도입을 강력히 지원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로봇수술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로봇수술은 우리 병원이 최첨단 고난도 암수술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만큼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하 원장은 “로봇수술센터가 개소 5주년만에 1,000례의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그 동안 수고한 천준, 김선한 교수를 비롯한 센터의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

으로 로봇수술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 최고 로봇수술센터

고대 안암병원은 국제적인 첨단의학센터 건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로봇수술센터는 그 중심에 서서 병원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독자적인 수술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아시아 최고수준의 수술성적의 명맥을 이어가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 최고의 로봇수술센터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뿐만아니라, 세계 제 1의 로봇수술 교육기관이자 수술센터인 세계로봇수술센터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고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정립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장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로봇수술센터는 환자들에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로봇수술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며 “의료진이 협력하여 향후 로봇수술센터가 지금의 위상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악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세 번째 이야기

[스페셜리포트 1]

장기이식인의 날 음악회 개최 / 기증자와 수혜자 소감발표 장기기증자 및 수혜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 마련




음악회에는 장기기증자와 가족들, 장기 수혜자와 가족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박승하 안암병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 등 보직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월 16일(목) 오후 6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생명나눔 세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장기이식인의 날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기기식센터(센터장 김동식, 간담채외과)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자들이 참석해 함께 음악회를 즐겼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음악회에 앞서 기증자와 수혜자들이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기기증자로는 뇌종양으로 인한 뇌사로 간, 신장, 췌장, 소장, 각막 등의 장기를 기증했던 기증자의 가족이 나와 장기를 기증하기까지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간, 신장, 심장을 이식받은 수혜자들이 각각 나와 장기이식 후 달라진 삶과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증자와 수혜자들의 소감발표 이후에는 ‘한국페스티벌 앙상블’의 음악회가 진행됐다. 플루트 이운영, 피아노 김정선, 카운터테너 이희상, 트럼펫 김완선 등 네명의 연주자가 나와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 ▲아베마리아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귀에 익숙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기기식수기〉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10월12일 새벽에 이식수술을 받은 윤송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망가져 투석한지 1년도 안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투석하는동안 많이 우울하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었습니다. 솔직히 기증을 받기란 힘들 것 같아서 기증자가 생기리란 기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린 5살 천사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술하기까지 정신이 없고 두렵긴했지만 박태관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에서 깨면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또 그때 그 천사로부터 같이 신장을 이식 받은 분이 저랑 같은 병실을 써서 서로 위로가 되었습니다.점차 컨디션이 좋아지고 통통 부어서 잘 걷기도 힘들었던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와 땀수도 있고 심

한 빈혈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수술한 제 배를 자주 만집니다.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서 잘 살겠노라고... 사랑한다고... 요즘에 주위의 어린아이들 특히 4,5살정도의 아이들을 보면 ‘내 신장이 저 작은 몸에서 나왔겠구나..’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짧게 생을 살다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고 떠난 어린 천사와 어려운 결정을 해준 유가족분들과 수술을 성공시켜주신 박태관 교수님 및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김수연 코디네이터 선생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지금의 정성과 노력을 잊지않고 살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윤송이

윤달 피해 결혼 일찍한다고? 그럼 임신전 관리부터!

[스페셜리포트 2]

태아기형, 임신 5~10주 사이 대부분 발생 건강한 아이 출산하려면, 계획임신하고 11가지는 꼭 체크하자!



1년 중 결혼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따뜻한 봄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4월말부터 5월 초가 윤달이어서 이 시기를 피해 3월이나 4월 초에 결혼식을 서두르는 커플이 많아졌다고 한다. 결혼식을 서두를 때에는 또 하나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임신과 출산이다. 특히 만혼의 증가로 허니문 베이비를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을 혼수로 준비하려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면 임신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산모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다.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가 지난 해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계획임신은 전체의 약 50%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계획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는데, 이 경우 초기에는 임신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가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흔하게 노출되는 위험성이 술, 약, 방사선 등인데 이는 태아기형, 조기진통, 미숙아 출산 등과 같은 문제발생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태아기형이 임신 5~10주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신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산모의 관리(산전관리)가 임신 7~8주는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전관리로는 태아기형을 모두 예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이전보다 훨씬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기형, 조기진통, 미숙아 등과 같은 문제의 발생 비율은 눈에 띄지 않게 좋아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대로 된 임신전 관리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준비기간에 엽산을 2-3개월 전부터 복용함과 동시에 금연, 금주, 약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의사를 찾아 이를 잘 관리해야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출산을 계획한 병원을 찾아 가족력, 이전 임신력을 토대로 향후 산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빈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ABO, Rh)검사, 이상 적혈구 항체검사, 풍진/수두 항체 검사, 매독혈청검사, B형 간염 검사, 갑상선 검사, 부인과 검사 등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최근에는 임신전 관리가 건강한 태아와 성공적인 임신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임신전 관리는 산모와 태아 건강의 첫 걸음이므로 가능하다면 계획적인 임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도움말 |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홍순철 교수

<임신 전 준비해야할 필수체크사항 No.11>

1. 임신 전 2-3개월전부터 엽산복용이 신경관 결손증을 포함한 태아 기형을 감소시킨다.
2.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일체의 술을 끊음으로써, 태아 알코올 증후군 및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예방한다.
3. 흡연중인 여성은 금연을 통해, 흡연과 관련한 조산, 저체중아 등의 임신 합병증을 예방한다.
4. 간질(epilepsy) 여성은, 임신 전에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낮은 단일 약제로 조절하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 4-5mg를 처방한다.
5. 임신전에 외파린 사용자는 헤파린으로 바꾸어 복용함으로써, 태아 외파린 증후군을 예방한다.
6. 여드름 치료제인 아큐탄(isotretinoin)은 최소 임신 1달 전에는 중지함으로써, 태아 기형을 예방한다.
7.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 약제로 알려진 일부 고혈압 치료제(ACE inhibitors), 위궤양 치료제(misoprostol), 류마티스염 치료제(methotrexate) 등의 복용을 피하고,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임신시 안전한 약제로 복용한다.
8. 임신 전에 풍진, 수두 항체 검사와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시행하여, 면역력이 없으면 백신을 투여한다.
9. 당뇨병 여성은 임신전에 혈당화색소 수치(HbA1c)를 7%이하로 조절하고, 인슐린 사용이 권장되며 엽산 4-5mg 복용이 권장된다.
10.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임신전에 진단, 교정함으로써, 태아의 정상적인 신경계 발달을 도울 수 있다.
11. 비만 여성은 임신전에 체중을 교정하고 엽산을 섭취함으로써, 비만시 증가하는 신경관 결손증, 조산, 당뇨병, 제왕절개증가, 고혈압, 혈전증을 감소시킨다.

혈액형과 성격

[의학칼럼 1]

혈액형은 서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응집 반응을 통해 구분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ABO식 혈액형뿐만 아니라 Rh식, MN식 혈액형 등 다양한 혈액형이 존재한다. 이중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ABO와 Rh 혈액형으로서, 수혈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보다는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온 것 같다. 예를 들어 A형은 성실하고 소심하며, B형은 기분파로 바람둥이가 많고, O형은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AB형은 머리가 비상하나 어딘가 독특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 혈액형 별 성격에 대한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과연 혈액형으로 성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보통 성격의 40% 정도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나머지가 자라나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형으로 인간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1900년 초반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혈액형에 따른 인종 우열이 존재한다는 등 현재와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일본으로 건너가 혈액형을 성격과 연관시키는 것이 유행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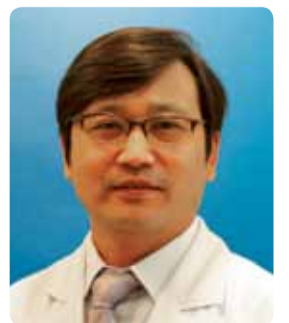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은 과학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혈액형에 의해 묘사되는 성격을 꼭 자신의 성격과 같다고 받아들이는 걸까? 이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혹은 일반적인고 막연한 부분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일 수 있고, 혈액형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근래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사실로 여기게 된 탓도 클 것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며 자아를 찾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O형이니 밝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등의 말로 자신을 규정해주니, 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은가.

그러나 이러한 혈액형 성격학은 즐겁게 웃으며 재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혈액형으로 애인과 궁합이나 자신에게 맞는 직업들을 점치고 이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혈액형을 떠나 ‘나’ 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글 |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



함병주 교수

병원내 환자안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1회 안전지킴이 워크숍 개최 / 안전지킴이 52명, 환자안전지킴이 65명 임명 및 교육




고대 안암병원(원장 박승하)은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안전지킴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지킴이 52명과 환자안전지킴이 65명 등 총 117명을 임명하고, 병원내 환자안전과 관련된 11시간 가량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환자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 사전에 시설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이루어졌던 환자 안전 관리 교육을 안전지킴이를 정식 임명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환자 안전의 원칙 및 '안전지킴이'의 역할 ▲위험관리의 이해 및 활동 방법 ▲근본원인분석(RCA) 방법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 방법 ▲시설안전 관리 ▲오류 유형별 분석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향후 안전지킴이는 ▲안전사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를 위한 활동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예방 및 개선활동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자안전지킴이는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를 위한 활동 ▲환자에게 발생한 근접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장려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하 안암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조업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면 다시만들면 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개인에게 큰 불행을 초래한다"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중간사고가 29건, 사소한 작은 사고가 300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면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가능하다. 오늘 임명된 안전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병원내 환자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말했다. 

안전하고 유효한 임상시험, 자체평가서 OK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7일(금) 오후1시 중회의실에서 'IST 내부 Audit 결과보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최재걸, 핵의학과)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임상시험센터 자체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타 병원의 기관실태조사 경험과 질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고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올해 식약청 정기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따라, 임상시험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의 '기관실태조사란 무엇인가?' ▲서울아산병원 QA 김은미의 '기관실태조사 경험' ▲세브란스병원 AQ 정우경의 '세브란스 임상연구의 질 관리' ▲서울 CRO 김경순 이사의 'CRO입장에서 본 기관실태조사 경험' ▲고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QA 김지애의 '기관실태조사를 대비한 자체 Audit 결과보고'의 순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QA 김지애의 자체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형식, 절차, 내용 등에 따라 유효하고 안전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향후 조사에서 점검해야할 주요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발표했다. 

2011 고대 안암병원 의료서비스, 이렇게 개선했다




고대 안암병원이 2011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들이 발표됐다.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월 2일(목) 대강당에서 '2011년 QI & CP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부서들을 포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교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실제 진료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200여명의 교직원과 보직자들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경진대회에는 ▲QI 구연발표 I, II ▲CP 구연발표 ▲CQI 우수사례발표 등 총 4가지 부분, 총 14팀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실천해온 QI & CP 실천사례들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포스터와 지면을 통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부서마다 활발한 QI 및 CP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QI 및 CP 활동은 특정부서나 특정팀이 아닌 전교직원이 모두 참여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표되는 다양한 제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QI부분 대상에는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NICU 병상 가동율 증진을 위한 개선활동' ▲CP부분 대상에 신경과의 '특발성 파킨슨 진단과정의 CP 개발'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전달받았다. 

대만 수출한 베스트셀러 의학교과서, 업그레이드 되다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가 발간한 베스트셀러 의학교과서 '그림으로 보는 TPI 통증치료(ISBN:978-89-94993-16-4, 한미의학)'가 최근 2판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많은 근막통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통해 골격근에 생긴 '통증유발점'과 그곳에서 시작한 '전이통'까지 상세하게 보여주어 근막통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7년 처음 발간한 이후 의학교과서로는 드물게 약 3,000부를 인쇄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대만에서도 2,000부가 발간되었다.

2판은 총론의 순서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만성통증의 개념을 강화했다. 각론의 경우 설명된 근육의 개수가 1개 늘었다. 이외에도 표지와 책의 디자인을 눈에 잘 띄고 선명하게 바꿨으며, 통증이 나타나는 몸의 부위별로 책의 내용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설명 아이콘 역시 각 내용에 의미를 담은 모양으로 세심하게 변경했다.

강윤규 교수는 "2판에서는 만성통증이 근육통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를 정리하고 그 근처에 근막통이 있음을 부각시키려했다"며 "보면서 눈이 즐겁고 기분이 흡족한 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동안 책을 아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윤규 교수는 1982년 고려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의료감정학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근막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병원소식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위험관리 중요성 ▲위험관리체계 및 환자안전보고체계 ▲오류를 통해 배우는 위험관리 사례발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진 후 연이어 '환자안전 UCC 경진대회'가 실시됐다. '국제환자안전목표 및 기타환자안전관리'를 주제로 이루어진 '환자안전 UCC 경진대회'에서는 톡톡튀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재밌고, 참신한 UCC들이 발표됐으며 대상은 간호부 외래팀, 최우수상은 외과 중환자실, 우수상은 82병동과 55병동무균실이 선정되어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JCI 재인증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JCI 재인증 필승을 다짐했다. 효과적인 JCI 재인증 준비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발대식에는 박승하 원장, 이기형 진료부원장, 박종훈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관리위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교직원들이 참석해 JCI 재인증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이날 선정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은 총 69명으로, 진료과별 병원평가교수, 각 진료 및 행정부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들 준비위원에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이라는 패치가 전달되었으며, 박승하 원장은 교직원들의 기수에 일일이 패치를 달아주며 격려했다. 🏆

간호부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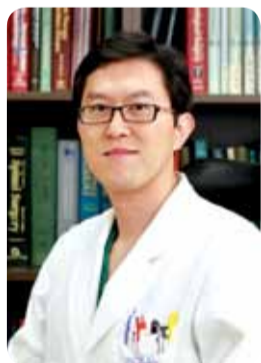


간호부(부장 이은숙) 외래 친절 향상 위원회에서는 2012년 1월 18일 불우 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돼지저금통 동전 모으기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선천적 기형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어머니께 전달하였다. 선천적 기형으로 이식수술을 통해서만 완치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는 어려운 형편에 수술을 위한 검사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성금모금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외래 전 직종에서 개인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모금된 성금 1,552,650원을 전달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팀, 학술대회서 최우수 학술상 수상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팀이 지난 2월 17일에서 18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25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연제는 '저산소 전조건화 자극이 HIF-1 α 에 의해 지방줄기세포의 VEGF분비에 미치는 영향(Hypoxia increases VEGF secre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through HIF-1 α induction)'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박교수팀은 저산소 전조건화 자극이 지방줄기세포에서 VEGF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때 HIF-1 α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전을 밝혔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줄기세포를 허혈성 뇌경색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박동혁 교수는 그동안 미국 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뇌신경재생센터에서 뇌허혈성 질환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연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이며 센터장인 Sanberg교수팀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신경치료 및 재생학회 (ASNTR),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외과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고대안암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세포치료센터에서 뇌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0여편 이상의 SCI 논문의 주저자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

필승! JCI 재인증 100%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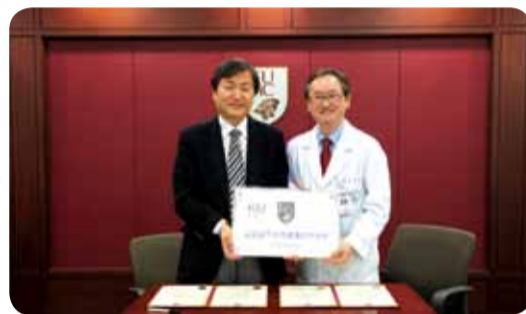
고대 안암병원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JCI 재인증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JCI 재인증 필승을 다짐했다.

효과적인 JCI 재인증 준비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발대식에는 박승하 원장, 이기형 진료부원장, 박종훈 적정진료 및 환자안전관리위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교직원들이 참석해 JCI 재인증에 대한 열의를 보여줬다.

이날 선정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은 총 69명으로, 진료과별 병원평가교수, 각 진료 및 행정부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들 준비위원에서 JCI 재인증 준비위원이라는 패치가 전달되었으며, 박승하 원장은 교직원들의 기수에 일일이 패치를 달아주며 격려했다. 🏆

고대 안암병원과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원장 박상은)이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박승하 안암병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은 지난 1월 19일 병원장 회의실에서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고대 안암병원-안양샘병원 협력병원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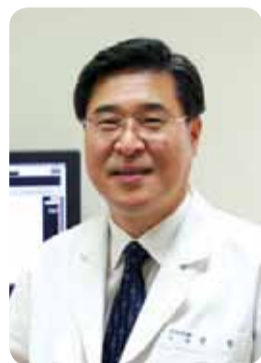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기회 제공,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 등의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고대 안암병원은 현재 전국 800여개 병의원과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진료협력 및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로봇수술센터장 비노기과 천준 교수가 세계적인 로봇수술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천준 교수는 Springer-Velag London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Robotic Urologic Surgery(로봇비뇨기수술)'의 제2판 중 'Chapter : Key Elements to approaching Difficult Cases in Robotic Urologic Surgery(로봇비뇨기수술: 어려운 사례에 접근해결하는 중요 수술기법)'의 집필을 담당했다.

비노기과 천준 교수, 국제 저명 로봇수술 교과서 집필 참여



이 부분은 로봇비뇨기수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는 장으로,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수술자의 집필이 필요한 챕터이다.

특히, 천준 교수가 집필한 부분에 삽입되는 모든 사진과 그림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시행된 비노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모습으로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 의학 삽화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천준 교수의 수술을 참관하며 집도의들과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덕분에 세계적인 로봇수술 의학교과서에 한국의 수술 모습이 여과없이 묘사될 수 있게 됐다.

천준 교수는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아시아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다”며 “한국 특히 고대 안암병원의 로봇수술센터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천준 교수는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아시아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다”며 “한국 특히 고대 안암병원의 로봇수술센터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천준 교수는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아시아 교수로는 유일하게 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다”며 “한국 특히 고대 안암병원의 로봇수술센터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3월 행사 계획

당뇨 교육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50분 / 장소 : 3층 당뇨센터 내 당뇨교실 / 문의 : 02)920-5394

내용 : 첫째주 - 당뇨병의 정의와 진단, 당뇨병의 전반적인 식사지침, 올바른 자가 혈당측정법과 발관리
둘째주 - 당뇨병의 치료(약물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식단작성과 식사계획, 약물요법
셋째주 - 당뇨병의 합병증,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사지침, 당뇨병 관리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정보
넷째주 - 자가관리, 외식시의 메뉴선택방법, 당뇨와 운동

소프트로지 분만교육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8층 소회의실

대상 : 임신 30주 이상의 산모

문의 : 02)920-5639

증상없는 알코올성 간질환, 심하면 치명적 간부전 초래

[건강정보]

여자보단 남자가, 유전적 요소 있을 때 잘 걸려 치료 원하면 일단 술부터 끊어야

알코올성 간질환이란?

주로 만성적인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간의 질환을 말하는데 형태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한 사람에게서 순수한 한 가지 병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각 병이 개인마다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간경변의 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염 다음으로 흔한 간경변의 원인이기도 하다.

증상 거의 없고, 매우 천천히 진행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간기능 부전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바이러스 간염이나 독성 간염과 비슷해서 식욕 감퇴, 구역질, 구토, 무력감, 체중 감소, 복부 불쾌감, 황달(눈의 흰자위나 심하면 피부 등이 노랗게 되는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게는 간이나 비장이 커져서 의사가 만질 수 있게 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피부에 동맥에 의한 거미 모양의 혈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에는 복수가 차거나 부종(몸이 붓는 것), 출혈, 뇌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술을 끊게 되면 이러한 증세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만일 계속 술을 마시면 간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알코올성 간경변증 역시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도 10년 이상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도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식욕감퇴나 부실한 식사 등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며 멍이 잘 들고 기운이 없고 피로한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 간기능이 저하함에 따라 황달이 짙어지고 위식도 정맥류(위나 식도의 정맥이 늘어난 상태)로 인해 피를 토하거나 복수가 차기도 하며 뇌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손바닥이 붉어지거나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호르몬 대사의 이상으로 남자의 경우 몸의 털이 줄어들고 유방이 커지거나 고환이 위축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 남성화 현상이나 생리 불순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술, 얼마나 마셔야 알코올성 간질환?

만성적인 음주가 알코올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하나 간경변까지 이르려면 술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매일 위스키를 500ml 정도 마시거나 포도주나 맥주를 하루에 5000~6000ml 정도 10년 간 마셨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간의 손상 정도는 술의 종류나 음주 습관보다는 음주한 에탄올의 양과 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하루에 마시는 술의 양이 많을수록 간경변으로의 진행이 빠르게 된다. 또한 영양실조 자체로 간경변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여자보단 남자가, 유전적 요소 있을 때 잘 걸려

같은 조건인 경우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 가능성이 높으며 위

점막 내에서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알코올 탈수화 효소(Alcohol dehydrogenase)라고 하는 효소의 양이 적은 사람일수록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일관성 쌍둥이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동시에 잘 발생하는 점을 볼 때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가능성도 있다.



가벼운 지방간은 초음파로도 발견안돼

가벼운 알코올성 지방간만 있는 경우 간 초음파검사나 간 동위원소 촬영으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좀더 진행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에는 이상이 발견될 수 있다. 간 전산화 단층 촬영(CT)을 시행할 경우 지방간이나 기타 소견 등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검사는 아니다. 간 조직검사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알코올성 간병변증으로의 진행 여부, 바이러스성 간염과 같은 다른 간질환과 구별이 곤란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치료 원하면 우선 술을 끊어라

우선 술을 끊어야 한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금주를 위해서는 환자만의 결심으로는 안된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가족분들의 관심과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충분한 영양 공급도 중요하게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충분한 칼로리와 비타민(특히 B종류)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중독 환자들은 이미 뇌에도 상당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알코올성 건망증이나 신경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타민 B 결핍과도 연관되어 있어 초기에 적절히 투여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을 받아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으므로, 음주량이 과하면 검사 받아 봐야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고 또한 술을 끊으면 완전히 회복이 되므로 일단 본인이 생각하기에 음주량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 기본적인 진찰과 더불어 간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성적 음주자에서 오른쪽 윗 복부의 통증, 식욕 감퇴, 구역질, 구토, 무력감, 체중 감소, 복부 불쾌감, 황달(눈의 흰자위나 피부 등이 노랗게 되는 증세), 체온 상승, 복부 팽만, 부종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히 의사를 찾아야 한다. 만성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발생한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은 복수의 신호일 수도 있으며 검은 변을 보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 심한 어지러움증 등은 위식도 정맥류에 의한 출혈의 징후일 수도 있다.



도움말 | 소화기내과 정진용 교수

정진용 교수

우리만의 친절 노하우를 나누자

[친절칼럼]


친절리더 4기를 맡게 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12년이 되었지만 과연 난 친절한 직원이 되었을까? 아직도 고객 불평과 흥분엔 감정이 앞서고 이렇다 보니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모든 환자들에게 친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만약 환자나 보호자라면 어떤 병원을 친절한 병원이라고 생각할까? 공손한 인사와 태도, 밝은 미소, 세련된 매너만으로 그 병원이 친절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환자들의 성향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적 계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병원 생활을 하다보면 환자들은 이런 모습만을 친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에서 친절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것이 친절하고 어떤 것이 불친절한 것을 모르는 직원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병원, 내가 일하는 과에 맞는 친절 노하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각과만의 독특한 친절 노하우가 하나 하나 쌓여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병원 전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친절 고

육, 친절 경험, 다양한 고객 불평 응대 방법 등을 서로 서로 나누고 익힌다면 우리만의 친절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눔은 친절 지식이 되어 기본에 충실한 진실한 태도가 바탕이 된 친절 노하우들이 작은 실천이 될 때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2년엔 우리 소화기센터 내시경실만의 친절 노하우를 쌓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 친절하 내시경실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도움말 | 내시경실 이기정 간호사

통합 의학 센터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센터소개]

통합의학센터는?



- 통합의학이란 환자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목표로 하는 전인 의학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치료의 경계를 확장 하려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 고려대학교 의료진의 첨단 현대학적 진단과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각과 전문의 협진)하면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보완요법과 한의학을 선별하여 병행함으로써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진료센터입니다.

•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개설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적 치료/치유 내용은?



- 모든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현대학적 진단과 치료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치료 효과의 상승을 위해 식물추출의약품, 면역치료, 영양 치료, 운동치료, 심신의학, 심리 행동 치료, 자연의학, 동종의학, 환경의학, 음악 심리치료, 바이오피드백, IMS(근육내 자극요법), 프로로 테라피, 생활습관개선교육, 헬스컨설팅 등을 병행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 (integrative medicine) 적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 적인 평가와 관리, 개인 상담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학적 치료/치유 대상은?

1. 암 환자 수술 전 후 면역요법 및 포괄적 관리
2. 대사성 증후군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고지혈증, 비만 등) 개선
3. 통증(두통, 견비통, 요통 등)을 동반한 만성피로증후군 완화
4. 불면, 우울, 불안, 긴장 등의 자연의학적 및 심신의학적 치유
5. 여성 질환 (갱년기, 만성골반통증, 월경전증후군 등)의 심신의학적 치유
6. (소아청소년 및 성인) 난치성 질환의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7. 혈관, 혈액정화를 통한 동맥경화 및 미세혈류 개선
8. 건강검진과 기능의학적 검사에 의한 영양처방

장소: 4층 하나은행 옆
문의: 02)920-6930

선진국선 우리 의술 생약 · 침 쓰는데 한국은 뭘니까

[의학칼럼 2]
중앙일보 기사 게재

“미슬토(겨우살이)라는 식물 추출물을 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미슬토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자연살해(NK)세포의 활성을 높일뿐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적혈구 · 백혈구 · 혈소판의 감소를 개선시킵니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성재 통합의학센터장은 암 · 갱년기 장애 · 미병(未病, 본인은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막상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병) · 통증 등을 생약 · 이완요법 등 통합의학 방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다.

이 센터장은 원래 통합의학의 보고장인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땀다. 독일 병원에서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다. 당시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 · 수술하면서 생약 · 허브 · 침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런 의술은 우리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을 선천성 심장병에서 생약 등을 다루는 통합의학으로 바꾼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40대 후반이던 1997년 귀국한 뒤 이듬해 한국 의사시험과 전문의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했다. “독일 의사인데 굳이 한국 면허에 연연하느냐?” 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환자 치료를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04년 대한보완통합의학회를 창립했다. 현재는 이 학회 이사장과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 회장을 맡는 등 우리나라에서 통합의학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자연의학』 『동종요법』 『의과대학생을 위한 한의학』 등 관련 서적도 4권이 출간했다. 그에게 통합의학에 대해 물었다.

◎ 기존의 의학과 통합의학이 어떻게 다른가.

“현대의학은 (주로 화학적으로 만든) 약에 주로 의존한다. 반면 통합의학은 생약 · 건강기능

식품과 이완요법 등 행동요법 · 운동 · 영양 등을 치료 도구로 쓴다. 의사 외에 한의사 · 심리 치료사 · 영양전문가 · 운동처방사 등이 함께 치료에 참여한다. 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도 통합의학의 특징이다.

◎ 선진국에서 통합의학의 인기는.

“독일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선 90년대 중반부터 병원에 통합의학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하버드대 · 존스홉킨스 의대 · MD앤더슨 · 스탠퍼드 의대 · 듀크대병원 등 명문 의대에 통합의학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국내엔 2곳 뿐(고려대 안암병원 · 부산대병원)이다.”

◎ 암 환자에겐 미슬토 외에 어떤 통합치료를 하는가.


“암 환자의 불안 · 우울 · 통증 · 불면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심신이완요법을 실시한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MBSR 요법이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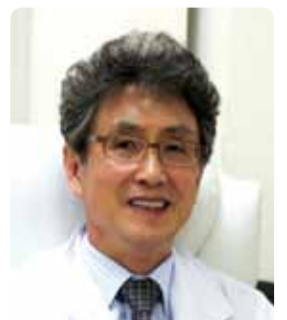
◎ 암 환자 외 다른 환자에도 통합의학 요법을 쓰나.

“갱년기 환자에겐 서양국화꽃 추출 성분(생약)을 처방한다.”

◎ 분명히 아픈 데 검사하면 ‘땡’ 인 미병은 어떻게 다루나.

“식품알레르기 검사와 유기산 검사를 한다. 이들이 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그는 신규 환자 1명을 보는데 보통 20~30분을 할애한다. 하루에 많이 봐야 20명이다. 통합의학은 병원 수입보다 환자 중심의 의학이란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성재 교수

글 | 통합의학센터장 이성재 교수

